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전통예술) 시범공연지원 심사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2. 26(금) 14:00, 대학로예술극장 지하1층 중연습실
  - 2차 심의 : 2016. 3. 22(화) 09:00, 대학로예술극장 6층 스튜디오 하늘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전통예술분야에는 총 70건이 접수되었고, 신청사업 중 신청서류 미비 및 지원신청 내용상 부적격 사업 2건을 제외한 68건(대극장 규모 25건, 소극장 규모 43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 공연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를 심의기준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의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프레젠테이션 심의대상 작품을 선정하였고, 2차 심의에서는 공연계획 프레젠테이션(작품당 10분) 및 질의응답(작품당 5분)을 통해 시범공연 최종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다.

1차 서류심의에서는 단체의 창의적 역량과 실험성, 작품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품의 구성력 및 독창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많은 지원신청자들이 그동안 꾸준한 활동으로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이었으며, 전통 소재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하거나 원형을 새로이 구성한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창작산실 사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작품 개발 고민의 부재로, 단순히 양악을 국악기로, 국악을 양악기로 연주하는 공연도 일부 눈에 띄어 아쉬움이 남는다. 작품 선정 시 성악, 기악, 무속, 놀이, 음악극 등 세부장르 배분과 지역색 강한 전통분야의 특성상 지역 배분도 고려하였다. 융복합 형태의 작품도 다수 신청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통이라는 소재를 현재와 미래로 연결하여 전통의 고리를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작품을 우선하였다. 전통 창작산실 사업은 올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단체들이 많이 신청하여 고무적이었으며, 2차 심의에서 계획서와의 일치성 및 예술성, 완성도를 고려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고자 10건(대극장 규모 4건, 소극장 규모 6건)을 선정하였다.

2차 프레젠테이션 심의에서는 작품의 발전 가능성, 제작 수행 능력에 중점을 두고 1차 선정 작품의 작품실현계획을 심층 심사하였다. 단체별 기획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서류심사 시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공연 세부 프로그램이 단조롭거나 원형의 재해석이라기보다 단순 재연에 그쳐 독창성이 부족한 작품들이 몇몇 있었고, 전체적으로 전통과 현대,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각기 다른 연결고리를 원활하고 매끄럽게 연결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출연료 대비 작곡료가

과다 편성되거나 기획의도는 좋으나 연출력과 예술적 참신함이 부족한 경우 감점 요인이 되었다. 전통 소재를 새롭게 구성하여 동시대성을 지니고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기획성이 돋보이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엿보이는 작품이 높이 평가되었다. 2차 심의를 통해 시범공연 지원대상으로 6건(대극장 규모 2건, 소극장 규모 4건)을 최종 선정하였고, 공연장 규모 뿐 아니라 출연진 수 등 작품규모를 고려, 전통예술분야에 배정된 총 7천만원 중 5천 4백만원을 배정하였다. 잔여 예산은 우수작품 제작지원시 활용할 예정으로, 올해 사업이 처음 실행되는 만큼 전통예술분야 진정한 창작산실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시범공연지원 최종 선정작품 중 2차 심의 시 구성의 단조로움과 불필요한 창작 및 타 장르 콜라보로 인해 국악의 부수적 역할에 대해 지적 받은 작품의 경우, 시범공연(쇼케이스) 제작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2016년 전통 창작산실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바라며, 본 사업을 통해 좋은 작품이 많이 발굴되어 전통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전통예술분야 심의위원 일동